



남가주 교계를 대표하는 목회자, 평신도 리더들이 이번 기도회에 참석해 기도했다.



디펜스포럼 주관으로 열린 '북한 체제 전복 전망' 토론회가 미 하원의원 회관인 레이번 빌딩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 위해 남가주 한인들 간절한 기도 올려

‘국가 기도의 날’ 한자리에 모여 연합기도회 개최

남가주 한인들이 올해도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국가 기도의 날(National Day of Prayer)’에 동참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2일 오후 7시에 15분에 나성순 복음교회에서 시작된 제 68회 국가 기도의 날에는 “LOVE ONE ANOTHER”이란 주제로 열렸으며 미 전역 4만 7천여 곳에서 기도회가 열린 것으로 추산된다. 남가주 한인교계에서는 미주성서화운동본부와 나성순복음교회가 주관하고 남가주교회협, 남가주목사회, OC교회, OC목사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기도회는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의 “생명을 심으면 역사는 일어난다”란 제목의 설교를 포함해 2시간 30분여 동안 진행됐으며 한인교계 지도자들과 남가주 평신도 리더들이 나와 기도를 인도했다. 기도회는 크게 세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1. 미국을 위한 기도, 2. 캘리포니아주 LA를 위한 기도, 3.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로 진행됐

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의 성도들이 회개와 거룩성과 영성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이밖에 가정과 학교, 교회와 문화, 사회 정의 등을 위해 기도하고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 장관들, 연방대법관을 비롯한 판사들, 연방의원, 주의원, 군 지도자와 캘리포니아 주지사, LA시장, 시 공무원들을 위해 기도했다.

미국을 위한 기도를 인도한 민중기 목사(중현선교회)는 “청교도의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 치유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며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나라가 일어나길 기도하자”고 했다. 캘리포니아와 LA를 위한 기도에서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는 “캘리포니아의 많은 미국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달라”라면서 “LA와 OC 주변이 깨끗해지고 범죄가 없는 도시가 될수 있도록, 교회 부흥과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을 감당하도록 기도합니다”고 했다.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를 인도한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는 “조국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며 “하나님께서 조국의 현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고 독려했다. 특히 이번 기도회에서는 최근 한국의 이념 갈등 해소, 한국교회, 이민교회 부흥 등 교계 부흥을 놓고 기도의 간절함이 더해졌다.

국가 기도의 날은 1952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의회 공동 결의안에 서명함으로써 처음 제정됐으며, 1988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 매년 5월 첫째 주 목요일로 국가 기도의 날을 정하자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가 기도의 날은 1952년 이래로 한 해도 빠짐없이 서명함으로써 한 해도 빠짐 없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전통으로 지켜져 오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北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2,300만 주민들”

[2019 북한자유주간] “내부 봉기 두려울 것”

북한자유주간 6일째인 3일 오후 디펜스포럼(대표 수잔 솔터) 주관으로 미 하원의원 회관인 레이번 빌딩에서 ‘북한 체제 전복 전망’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을 비롯한 탈북자들은 현재 김정일이 보이고 있는 행보와 북한 내부 사회의 변화를 종합해 볼 때 북한 정권은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두려워하지만 무자비한 독재로 압제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봉기를 더욱 두려워한다고 평가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은 2천3백만 북한 주민들을 강력한 독재로 억압하고 있고 이는 한편으로 북한 내부 주민들로부터의 봉기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독재를 무너뜨리는 것이 최대한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며 북핵 문제 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 내부를 봉기시키

는 일을 위해서는 정보를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또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와 그리고 인권을 중요시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이고 자유를 억압하며 인권이 전혀 존중되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맥스웰 연구원은 특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 3대 세습 정권의 자취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못박았다.

그는 “평화적 통일, 경제적 통일, 군사적 통일을 이뤄가야 하지만 결국 김 정권의 발자취는 절대 남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맥스웰 연구원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이념적인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계속 공격해야 하고 그 과정이 다소 불안정하고 힘들수도 있지만 북한 내부에 꾸준히 정보를 유입하고 영향력을 주는 일을 추진해야 한다. 독재 아래서 고통받고 억압받는 많은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고 탈북자들의 지혜에 귀 기울이자”고 말했다. [2면에이어서]

교수직, 안정적인 직업?
 -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개강: 6월 1일(토) ATI 대학
연방정부 한국어교사(CIA)
한국어 법정통역사, 번역사
주말반 토, 일 세미나
 T: (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 2018047569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7월 15일(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6월1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남가주조은교회에서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을 위한 선교대회가 열렸다.

‘서부 아프리카’ 위한 ATI 선교대회 성료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 남가주 조은교회 Faith Chapel에 뜨거운 기도 소리가 들렸다. 서부 아프리카 불어권 국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ATI (American Theological Institute: 아프리카 내 미국 신학 교육원) 선교대회에서 드리는 기도였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40여명의 목회자와 선교 후원자들, 그리고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부아프리카의 목회자 양성과 교회 개척을 위한 전략을 토의한 ATI 선교대회는 벌써 7회째 모이고 있다.

2002년부터 시작된 박우원 목사(ATI회장)의 아프리카 선교 여행이 ATI 태동의 씨앗이 되었다. 박우원 목사가 서부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하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은 현지 영적지도자들의 문제였다. 수적

으로도 너무 부족했고, 질적으로도 너무 열악했다. 현실을 목도하고 기도하다가 2012년 동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설득하여 ATI 선교회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소수가 동참했지만 지금은 교단을 초월하여 40여명의 목회자와 교회들이 동참하고, Gatewa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교수들이 동참하여 보다 더 풍성한 신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첫날 저녁집회를 이끈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인간이 가지고 있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다”라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종이 되었던 자들을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란 중보기도자들로, 어둠 안에 있는 자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

하는 무리들이다. 그런 제자들의 모임인 ATI 선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ATI 선교회는 신학교육을 통하여 목회자 재교육과 목회자 후보생 신학교육을 통하여 양성한 지도자들의 개척을 돕는 CPI (Church Planting Initiative: 교회 개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결국 신학교육을 통한 지도자 양성과 양성된 지도자들을 통한 교회개척으로 아프리카 복음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현재 ATI 선교회에는 박우원 회장이외에 학교 교수진으로 수고하는 박사 학위를 가진 목회자들과 신실한 사역자들이 동참하고 있다. 4월 29일에 시작한 선교대회는 5월 1일 새벽기도와 선교 전략회의를 끝으로 성료되었다.

문의) 714-482-5466(안상희 교수)

[1면 “北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에 이어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미국이 북한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이유는 김정은 정권이 2,3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한국 드라마를 접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여기에 정보를 가미해 준다면 북한 자유화 운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가장 못살고 힘든 곳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는 상식이 됐다.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는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결국 이것이 김정은 때문이라는 각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북한 내부 세력과 연계될 때 북한 체제 전복은 가능해 진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남북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현재 한국에 3만4천 명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북한 내부를 흔들고 독재정권을 교체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의 활동을 막지 말고 결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미국은 북핵을 없애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우리 탈북자들은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북한 주민들이 속히 자유를 찾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인권과 그 연구를 위한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데 정말 실제로 북한 주민들을 의식화시키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안을 미국은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실제로 북한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보가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직접적인 것이 아닌 간접적인 것에 너무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내 모든 탈북단체들을 총가동해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바깥에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고자 한다”라며 “그 내부의 위조된 허상을 낱알이 알리고 북한 고위층들의 대량 탈북을 만들어 내고 북한 내부에 있는 동료들을 통해서 민주화 풀뿌리 조직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김대원 기자

박상학 대표 북한 실상 강연회

박상학 대표(자유북한운동연합) 간증 집회가 5월 14일(화)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다. 구국재단(Save Korea Foundation)이 주최하는 이번 집회에서 박 대표는 ‘북한 독재 정권의 실상’과 ‘북한 주민들의 현실’에 대해 전한다.

탈북자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인 박상학 대표는 2005년부터 풍선에 대

북전단을 매달아 북한에 보내는 대북전단 활동을 해왔다. 2013년에는 미국의 인권재단으로부터 바츨라프 하벨상을 수상하였다. 이 외에도, 수잔 솔티 여사와 함께 ‘자유북한연대’를 창립하고, 미국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추진했던 남신우 대표(북한인권국제연대)도 참석한다. 집회는 무료이며 강연회 후 김밥과 떡이 제공된다.

문의: (949)380-7777

나성한인교회, 지역사회를 위한 ‘미션카페’ 오픈



나성한인교회는 5월 5일 미션 카페를 열고 오픈행사를 개최했다.

창립 43주년을 맞이한 나성한인교회(신동철 목사)는 5월 5일(주일)에 미션 카페를 오픈하고 교인들과 시의원, 경찰서장, 상공회의소 임원들과 지역주민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오픈 행사를 개최했다.

6개월 간의 건축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번에 문을 연 미션 카페의 정식명칭은 ‘The Spring Mission Café’로 교회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선교 및 어려운 이웃 돕기를 위해 다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동철 목사는 “교회와 세상과의 접촉점을 만들어 서로 소통하며 선

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교회가 앞장 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에릭 가세티 시장실과 호세 휘자르 시의원 사무실 보좌관, 경찰서장, 엘 세레노 명예시장,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오픈 테이프 커팅을 했다.

나성한인교회는 한인인민자들을 위한 한인 목회와 영어 목회(Hillside LA)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힐사이드LA’는 한인 1.5세 목사를 중심으로 한인 1.5세와 2세, 영어권 라티노 2세, 백인, 흑인 등이 함께

하는 다인종 커뮤니티 교회로 성장했다. 이처럼 나성한인교회는 다민족을 품고 성장해 가며, 한인 교회가 새롭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다인종 선교를 통해 한인교회들이 한인사회의 좁은 울타리 안에서 젊은 세대는 교회를 떠나고 새로운 이민자는 줄어들어 교회의 성장을 멈추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새로운 교회 성장의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미션 카페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카페 문의로는 총무부 임선기 장로(323-559-0394)에게 하면 된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



2019년 표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하는 교회

새 힘과 평안을 드리는 서울시티교회

서울시티교회 사명

만민을 구원하겠습니다.
 만민을 치유하겠습니다.
 만민을 가르치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서울시티교회 핵심가치

세상을 변화시키는 첩경은 비그리스도인을 전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임을 믿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믿고 실천합니다.



조희서 담임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시티교회
 THE SEOUL CITY CHURCH
 담임목사 조희서
 www.SeoulCityChurch.com 전화 82-10-435-0356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 50

● 김인수 목사의 한국교회사

1920~30년대의 교회 상황 (I)

3·1 독립운동 후의 교회는 그 이전보다 겉으로는 약간의 자유가 보였던 것같이 보였다. 그러나 일제의 집요한 교회 억압은 눈에 보이지 않게 꾸준히 지속되었다. 많은 사람이 독립을 얻지 못한 좌절감과 가족, 교우, 그리고 이웃을 잃은 슬픔 속에 잠겨 있었다. 이 때 교회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앞으로 더욱 거세게 불어 올 일제의 교회 탄압에 대해 신앙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구원과 교인들의 신앙적 각성과 부흥을 위한 사경회와 사경회를 이끌고 갈 지도자들을 마련해 두셨다. 이들은 1907년 대부흥운동의 기수였던 장로교회 말씀의 사자 김선주 목사와 전무후무한 신유(神神)의 기사를 행하며 각처를 다니던 김익두(金益斗) 목사, 그리고 감리교의 목사로서 한국 교회에 신비주의의 전형을 보여 준 이룡도(李龍道) 목사였다.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미국노로 인식시켜 매장하려는 의도로 그렇게 했다고 갈파했다. 김 목사를 매도하는 무리들이 적지 않게 있었으나 김목사는 이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였다. 그는 감옥에 2년간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거의 외웠고, 또한 철저히 탐구하여 「말세학」이라는 계시록 강해집을 만들었다. 이 책은 한국인이 쓴 최초의 종말론이다. 출옥 후 그는 이것을 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말세학 사경을 주도하였다.

1920년대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밀려들어오던 암울한 현실에서 갈 길을 찾던 교인과 민족에게 종말과 재림사상을 가르침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게 한 김목사의 말세학 사경은 그들에게 새 희망을 갖게 하는 전기가 되었다. 이 때 김목사의 말세학 사경을 한국 교회로 하여금 현실을 외면하고 내세지향적인 신앙으로 이끌고 갔다고 지탄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이것은 그의 말세학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다. 김목사는 말세학을 강의하면서 이 세상은 모두 썩어 없어질 멸망의 세상임을 이 세상에 뜻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내세에 뜻을 두자는 말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말세학에서 지상의 낙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다.

“예수 밭으시던 지구는 새 땅이 되어 영원히 있을 거시오 예전의 위치이던 지구는 소각될 거시 아니라 불꽃검으로 수호하던 예전은 다시 나타나서 이 지구는 무궁 안식세계가 될 거시다.”

이 독특한 김목사의 신학을 김린서 목사는 ‘조선신학’이라고 갈파하였다. 일제의 억압에 시달리던 민족에게 해방의 면동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영원히 잃어지지 않고 남아 있을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민족의 독특성을 지킬 것을 외쳤다. “.....우리는 다른 민족이 될 수 없다. 다른 민족의 옷을 입어도 아니되는 것이다. 우리는 백의민족이며 우리 자체가 백의민족의 문화적 존재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우리의 것을 버리지 말라. 우리의 것을 애호하고 시대와 함에서 우리가 우리로서 성장하고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다.”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우리의 문화를 수호할 것을 외치던 민족의 선각자는 복음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복음을 외치다가 사경회 중 강대 위에서 쓰러졌다. 그는 민족복음화에 앞장섰던 성경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전도의 거인이었다.

김선주 목사가 일생을 바쳐 목회하였던 서북 장로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선동을 받은 일부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청년들이 김 목사 배척을 목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김 목사는 결국 20여 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원로목사로 남게 되었다. 정든 교회에서 배척당하고 떠난 것이 그에게는 애석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 교회에 매어 두지 않으시고 전국 교회를 자유스럽게 다니면서 전도하게 하시려는 섭리가 있었다고 김린서 목사는 해석하였다.



미드웨스턴 침례신대학원에서 제 65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미드웨스턴 제65회 졸업식

PhD 학위 수여자 2명 배출

지난 5월 3일 미주리주 캔ساس 시에 소재한 미드웨스턴 침례신대학원에서 제 65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봄학기 졸업식에서 배출한 학위자는 총 197명으로 미드웨스턴의 역사상 가장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한국부에서는 박사원 13명, 석사원 4명이 학위를 취득함으로써 미드웨스턴의 학위 과정이 졸업에 이를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가을학기 졸업생들을 고려하면, 지난 한 해 한국부에서만 36명의 학위자(박사원 21명, 석사원 15명)를 배출한 셈이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서는 성경사역학 철학박사(Ph.D. in Biblical Ministries) 과정에서 두 명의 학위 수여자를 최초로 배출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다른 박사학위에서 이점한 학점 및 체계적인 선행 연구를 통해 학위를 마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본 과정이 시작한 지 3년 반만에 두 명의 철학박사가 수준높은 논문을 쓰고 졸업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미드웨스턴 한국부의 체계적인 학사관리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철학박사학위를 받은 성백승 목

사(제일침례교회)는 “도시 상황에서 교회개혁 기원단체 전략연구—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란 논문에서 각기 다른 도시 상황에 최적화된 개척 모델을 어떻게 도출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김종성 목사(영광고등학교 교목)는 “신앙 공동체의 제자도 형성을 위한 전인적 교육에 관한 연구”란 주제로 ‘회심’의 신학적 원리와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고 ‘회심한 공동체’의 내면화 과정을 전인교육 사상을 통해 고찰하였다.

성경사역학 철학박사과정은 이번에 수준높은 논문을 배출함으로써 21세기 문화 속에서 한국 및 한인 교회의 실질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론에 학문적인 토대를 놓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남침례회(SBC) 산하 신학교 중 하나인 미드웨스턴침례신대학원(mbts.edu)은 ATS와 미국 내 중북부 지역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HLC의 인가를 갖추고 있다. 특별히 한국부는 재학생만 600여명이며 탁월한 교수진과 최고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는 학교로 정평이 나왔다. 학교 입학에 관한 정보는 학교 홈페이지(www.mbts.edu/ks)에서 얻을 수 있다.

“예수로 채우라, 은혜로 채우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나성금란 연합감리교회(이석부 목사)는 5월 17일(금)부터 19일(주일)까지 3일간 관주환 목사(베다니교회)를 초청해 “예수로 채우라, 은혜로 채우라”를 주제로 부흥성회를 연다. 일정은 17일(금) 오후 7:30, 8일

(토) 오전 6:00, 오후 7:00, 19일(주일) 오전 8:00, 오전 11:00, 오후 1:30이며 강사 관주환 목사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사, 교회성장 연구소 이사로 섬기고 있다.

주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전화: (310)973-5106

가정의 달 맞아 살롬경로잔치 개최



살롬장애인선교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살롬경로잔치를 만리장성에서 개최했다.

살롬장애인선교회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연로하신 장애인 회원들과 그 가족들을 모시고 “제 20회 살롬경로잔치”를 개최했다.

5월 7일 오전 11시 30분에 만리장성에 25명이 모인 가운데 박모세 목사가 “네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고 선물 증정 및 사진 촬영 후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살롬장애인선교회는 6월 6일 창립 20주년 감사예배, 6월 8일 장애인 가족 초청 야유회, 7월 14일 제 16회 휠체어 사랑이야기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 안녕 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리십시오. 오세로~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크리스천상담심리학 석사과정

Master of Arts in Christian Counseling Psychology : MACCP

이민자가 처한 상황에서 출발하는 기독교상담학으로 기독교 복음 위에 상담 이론과 실제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학위과정

- 온캠퍼스 온라인 교육으로 운영 (필요할 경우, 현장방문 교육도 가능)
- 학위과정 총 48점 : 2년에 학위 취득 가능
- ABHE와 ATS로부터 인가 취득 (I-20 Form 발행)
- 저렴한 학비 : \$260 / 1학점, 한 과목당 \$780
- 각종 장학금 혜택 (MAICS 과정과 동일)
- 임상 경험이 풍부한 Ph.D. 학위 취득한 교수진으로 구성
- 전문적인 교회 상담요원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교회와의 긴밀한 연대 (지역교회 상담요원으로 본교에 위탁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본교 부속 산타페상담소에서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임상경험 쌓기

입학문의및상담 MACCP 디렉터 및 산타페상담소 소장 김용환 박사
yhkim@ptsa.edu / 909-767-9590

본교비전과 특징 전세계 22개 노회, 4600여 교회로 구성된 미주 최대 한인교단, 해외한민족포럼(KPCA) 직영신학교 -졸업 후, 전세계에 흩어진 사역지 (교회, 선교교) 연결망 (북미, 중남미, 뉴질랜드, 호주, 유럽, 일본 등)

I-20 발행 정회원 ats 정회원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111>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다녀와서

필자는 매 2년마다 하는 인터콧선교회의 5회 글로벌 얼라이언스에 다녀왔다.

한국 상주의 열방선교센터에서 5월 1-4일까지 열렸다. 참가국 82개 나라에서 3500명의 각국의 선교지도자들이 모인 성령의 집회였다. 총 40명이 넘는 각국 대표들의 선교보고를 들으며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가득했다. 필자는 1회부터 이번까지 10년간 매번 참여하면서 더욱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실감하면서 감동하면서 감사하면서 가슴 벅찬 은혜의 시간을 맞보았다. 그 감동을 이 지면에 모두 펼칠 수는 없겠으나 일부만이라도 독자와 나누고 싶다. 개회설교를 한 김명혁 목사의 말처럼 "세계선교를 위한 세계교회의 영적동맹과 협력"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도 82개국의 대표들이 모여 그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의 몇몇 지도자들이 정부의 비자허가를 받지 못해 안타까운 발걸음을 돌리게 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4일간 40명에 이르는 강사들의 각 나라들의 선교보고를 들으면서 정말 믿기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섭리와 임재를 내내 체험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예배와 찬양. 앞 화면에 무려 21개국의 언어가 동시에 피피티로 펼쳐지며 3500명은 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찬양을 하는 데 그것이 어우러졌다. 각국의 통역부스가 설치되어 강단에서 선포 되는 말씀과 선교보고를 동시에 각기 지원받은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수천대의 통역 리시버를 쫓고 동시에—아멘하고 동시에 기도하는 이 놀라운 장면은 가히 요한계시록의 천상의 예배 장면을 미리 보는 듯 하였다.

첫날 강사로 선 황성주박사(국제사랑의 봉사단)는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세계화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세계 교회연합의 영적 엔진이 되고 있다 했다. 필자도 동감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저 열방땅에 세우기 위한 82개의 나라들의 교회들마다 엄청난 영적전쟁을 겪으며 이겨 나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모두에게 눈물범벅이가 되게 했던 감동과 기적의 역사들도 있었다. 먼저 한가지 필자의 개인적 감동을 말한다면 불과 4년전 한 선교사에게전도받아 예수를 영접했던 터키인 형제가 매년 필자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믿음이 크게 성장하더니 어느새 현지 교회의 교회지도자가 되어 이번 대회에 참가하여 큰 기쁨이 되었다. 필자는 너무도 귀했던 그 날의 감동을 독자들에게 전해드려야 한다는 사명이 들었다. 같이 나눌 내용들을 몇번에 걸쳐 전하려 한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존 킴 교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성자 장기려 박사의 나눔의 행복 (2)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한국의 슈바이처’ ‘행려병자의 아버지’ ‘바보 의사’, 혹은 ‘송도의 성자’로 불렸던 장기려 박사는 탁월한 외과의사였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을 치료하였습니다. 1940년대 김일성 맹장 수술을 집도했고, 김일성이 평생 장기려 박사를 존경하며 그리워했습니다. 그후 김일성은 신장결석이 걸렸을 때, 목 뒤에 혹이 낫을 때, 무조건 장박사를 데려 오라고 했습니다. 또 장박사는 경성의전 부속병원 근무 시절 척추결핵으로 입원한 춘원 이광수의 주치의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춘원 ‘사랑’의 주인공 의사 안반의 모델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일제 시대에 의사가 된 장기려 박사는 평양에서 외과의사로 근무하다가 1950년 12월 6·25전쟁 때 후퇴하는 국군을 따라 남쪽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는 부산에 정착해 제3 육군병원 의사로 재직하는 한편 전쟁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 천막을 치고 의료구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51년 7월 1일 경남구제위원회의 전영장 (거창고등학교 교장)과 한상동 목사(고신측원로)의 요청으로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영도 제3 교회에서 무료진료기관인 복음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이 복음병원은 장박사의 지인이 미국에서 모금해 보내준 돈과 유엔이 지원하는 하루 50인분의 약, 그리고 장기려박사의 헌신으로 시작된 병원이었습니다. 미군용 야전 천막 3개가 진료소와 입원실, 수술실로 모두 사용되던 병원을 본 한 미군 의사는 ‘동물병원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장기려 박사는 25년 동안 이 병원의 원장을 맡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의술을 베풀었습니다. 장기려박사가 복음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그의 선행은 유명한 일화들을 남겼습니다. 무료

로 시작한 복음병원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약간의 치료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없는 사람을 보면 장기려 박사는 자신의 월급을 털거나 가불을 해서 대신 내주곤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자주 반복되어 가불할 월급조차 없게 되자 병원 직원들이 장기려의 월급에서 미리 치료비를 계산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기려는 밀린 입원비 때문에 퇴원하지 못하는 환자의 사정을 듣고 환자에게 몰래 속삭였습니다. “이따가 밤에 뒷문을 살짝 열어 놓을 테니 직원들 모르게 도망치세요.” 장기려 박사가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복음병원 원무과에 근무했던 원로장로님에 의하면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원무과에서 진지하게 병원비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원무과로 보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원장님은 번번이 사고(?)를 치셨답니다.

장 박사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큰 회사의 초청을 받아 강의를 했는데 강연 후 그 회사에서 수표가 든 봉투를 주었습니다. 회사 밖을 나오는데 거지가 나타나 도와 달라고 손을 벌렸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서슴지 않고 자기가 받은 그 봉투를 그대로 주고 돌아왔습니다. 그 거리의 천사는 그 봉투를 건네준 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받아 현금으로 바꾸려고 은행 창구에 갔더니 은행에서

날리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수표가 생겼느냐’고 묻습니다. 어떤 신사 한 분이 이 봉투를 내게 주어서 받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수표를 추적하니 회사가 장기려원장에게 감사료로 준 수표였습니다. 장박사를 존경하는 회사 경영진이 감사료에다 좋은 일 하 시라고 큰 금액을 보태어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표를 도로 찾아가려는 연락을 경찰이 하였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그 수표를 찾으러 가는 며느리에게 신신 당부하였답니다. “네가 그 돈을 찾아서 한 푼도 남김없이 그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한 푼이라도 네가 집에 가지고 돌아오면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과연 장기려 박사다운 모습입니다.

가난한 환자와 영세 가족들을 의료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 1968년 5월 발족시킨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은 한국에서는 최초로 추진된 의료보험사업입니다. 부산지역 교회의 협조를 얻어 시작된 ‘청십자의료협동조합’을 통하여 ‘청십자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세계의 선진국들이 부러워하는 한국의 의료 서비스 제도의 시초입니다. 늘 가난한 이웃을 생각했던 장기려 박사의 생각이 한국의 제도가 되어 병원의 문턱을 서민들에게 낮추어 준 것입니다. 장기려 박사는 의술도 탁월했지만 예수님을 닮은 믿음과 사랑의 나눔은 더 탁월했습니다. 그는 평생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환자와 환자보호자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면 그냥 넘기지 못했던 장기려 박사는 가난했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았지만 집 한 채도 없어서 복음병원이 마련해준 병원 옥상에서 마지막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나눔의 삶을 살다간 장기려 박사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의 믿음과 나눔의 유산은 한국 교회와 의료계를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고 나눔의 행복을 누렸던 성자였습니다.

오월의 기도

빠알간
 카네이션 한송이
 어머니 가슴에 달아드리다
 서럽게 울었던 날이 있습니다.

한송이
 카네이션도 못 드리는
 서러운 이민자의 오월

깊숙한
 어머니 주름살 보고
 제발 저린 불효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매일 태평양을 건너는
 불효자의 오월기도

빠알간 카네이션 대신
 빠알간 눈으로 속죄하는
 불효자의 오월은 젖어 있습니다.

-강태광 목사, 시인



제33차 5월 27일 하루 신약통독

이번 (Memorial Day) 휴일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Memorial Day 휴일을 맞이하여 신약 27권 260장 전체를 하루에 통독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전 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통째로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과 육이 새롭게 활력을 얻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9년 5월 27일(월) Memorial Day 오전 8:00

장소 갓스윌연합교회(이희철 목사)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el:(909)983-0994

참가비 30불 (식사 및 간식)

강사진

안성기 목사, 이희철 목사, 김동원 목사, 정화미 선교사, 이복자 전도사

교회 찾아오시는 길
Tel:(909)983-0994
904 E D St, Ontario, CA 91764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안성기 목사) 전화문의 환영 Tel:(909)268-4279

효부 룯의 영적소망과 은혜보장

룯기 1:16-21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룯기 1:16-21

룯기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사울 왕이 세워지던 왕정정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약 350년 동안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정치를 하셨습니다.

1. 룯의 영적소망

이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헬에 에브라다 사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다 혈통이고 베들레헬에서 은혜를 힘입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나오미라는 아내와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네 식구가 꽤 부자로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복을 누리며 잘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능멸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그 땅에 흉년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농작물이 전혀 추수할 것이 없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생할고를 먼저 겪어야 하는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레위기 26:19-21에는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하여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대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철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고통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닫고 겸손히 무릎 꿇어 회개하면 다시 그들을 은혜조건으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반복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베들레헬에 흉년이 계속 되는 것은 그 백성들의 교만과 죄 값으로 징벌을 받는 과정이었는데 나오미의 가족은 그것을 피하여 멀리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중 진노를 받게 했던 불 신앙적 배은망덕이요 하나님께 대한 대적행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모압 땅은 사해 동편의 넓은 평원이 펼쳐진 곳으로 목축이 성행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호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인 남편을 치셨고 엘리멜렉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빠른 깨달음으로 아들 둘을 데리고 서둘러 하나님의 떡집, 생명이 공급되는 베들레헬으로 돌아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곳 저주받은 혈통인 모압의 딸들과 아들을 결혼시키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집안의 두 아들마저 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만 대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능멸하거나 대적하거나 거역, 불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 주시다가 끝내 돌이킬 가망이 없어 보이시면 할 수 없이 없애 버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고 과부 세 사람, 나오미와 모압여자 큰며느리 오르바와 룯이 남았습니다.

나오미의 가슴에 남편과 두 아들을 물어아하는 불행한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베들레헬에 회개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벌로 내리셨던 흉년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풍년의 결실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베들레헬은 떡집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떡집을 떠난 것은 생명의 양식 공급을 거부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이 객사하는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베들레헬을 떠나서 죄악세상인 모압 땅으로 가서 잘살아 보자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베들레헬에 남아서 하나님의 매를 맞아가면서도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던 그 백성들의 흉년의 고통을 겪었던 것보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헬이 회복되어서 풍년이 들었다는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로소 나오미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이제 베들레헬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정리하고 출발을 합니다. 나오미는 젊은 자부 둘을 함께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 그들을 타이릅니다. “내 딸들이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오리라 있느냐”(룯1:11)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시어머니의 간곡한 청을 큰며느리 오르바는 받아들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룯은 1:16-17에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며 강한 의지를 내보입니다.

이러한 룯의 신앙고백은 육신이 다 늙은 시어머니 그것도 남편과 두 아들을 객지에 묻어두고 여자로서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보잘 것 없는 늙은이에게 세상조건으로 무슨 기대 걸 것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부담스러운 일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일해서 봉양해야 하는 대접하고 음

시뻐 만아이라 웃도 신발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룯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룯은 그 집에 시집을 오자마자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왜 가장이 객사하고 두 아들마저 객지에 묻어야 했는가 하는 것은 그 시어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고 능멸하고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룯은 분명한 영적소망을 목적으로 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보리 추수 중에는 남자들은 전부다 들어가서 움막을 치고 계속 밀 보리를 베면서 먹고 자고 합니다. 성안에는 여자들과 아이들 밖에 없습니다. 성문에 해질녘에 들어오는 나오미를 보며 사람들은 “나오미가 아니냐?”며 묻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뜻은 “희락”입니다. 지금은 나오미라는 이름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깊이 참회하는 태도의 모습이었습니다.

2. 은혜보장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선민사상이 있어서 특히 이방인들 중에도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룯의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생겨난 큰딸의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딸의 아들이 암몬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 받은 백성, 하나님 앞에 너무나 비천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룯이 베들레헬에 시어머니

를 따라 들어 온 것은 자기의 출신성분과 가정이 아무리 비참했다 할지라도 저주의 피를 이어받은 불행한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영적소망의 믿어지는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영적소망 하나를 목적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멸시와 천대, 구박을 각오하고 왔을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룯의 행동이 시어머니를 위한 행동으로 보여졌지만 그 중심은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인정받고 구원 얻고 싶은 영적 소망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소망에 대하여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를 살펴 진실된 마음으로 룯과 같은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룯의 이러한 효성은 온 성안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룯의 행적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헬 성주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룯은 보아스를 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룯기4:17-18에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했습니다. 마태복음1:5에 보면 이 룯이라고 하는 모압여인이 예수님의 족보가운데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소망과 희생과 수고, 겸손과 섬김을 통하여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구원얻기 위한 영적소망을 기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 현시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AM1650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2019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석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영호 박사 (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ue.edu, aeu@master@gmail.com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시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우),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어머니 사랑해요!”

50% - 80%까지
폭풍세일!

'와싸다'

반지천국 초저가 라인 총출동 퍼레이드!!



'물반 고기반' 최저 59불 부터 시작,

어버이날 맞이 공짜선물 이벤트!

500불 이상
구매고객
두줄 진주목걸이 증정

경제적으로 부담없는 가격대의 제품부터 최고급 프리미엄 제품까지!!
총 3000여점의 다양한 제품 전시 할인판매!!

선물용으로 좋은
핵진주 반지, 브로치

고베펠이 마련한 경제적인 가격대의 일본산
핵진주 브로치와 반지 귀걸이등 마더스데이
2019년 신제품 최고의 선물!



Helen Aiko 명품
진주 전시판매



진주 목걸이 펜던트 및 귀걸이 칼라스톤
호박세트등 신제품 500여점 대거출시

봄맞이 패션 팔찌,
반지 등 신제품 대거 출시



마더스데이를 맞아 한국세공의 부담없는 가격대의 선물용 합성 칼라스톤 특별 기획전이 펼쳐집니다.
500여점의 다양한 디자인의 고베펠 칼라스톤 신제품을 만나보세요!

엘에이 한인타운 일정안내
일시: 5월 9일(목)부터 11일(토) 단 3일간
장소: 로텍스호텔 2층 특설매장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올림픽과 그래머시)

부에나파크 일정안내
일시: 5월 12일 (일) 단하루
장소: 홀리데이 인 부에나파크 (91번과 비치 만나는곳)
Holiday Inn Buena Park Garden 1 Room
7000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0

KOBE JEWEL GROUP
Rings Heaven

GIA SOPHIA Y KANG
GIA 진주보석 감정사
GEMOLOGICAL INSTITUTE OF AMERICA



미국 GIA 진주보석 감정사 매니저가
고객님의 합리적인 쇼핑을 도와드립니다. 각종 신용카드 환영합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영업합니다!



제 1회 워싱턴주 선교대회가 시애틀형제교회에서 열렸다.

“교회가 직면한 시대적 상황과 복음의 능력 확인할 수 있었다”

워싱턴주선교단체협의회(회장 이병일 목사, 이하 워싱턴)이 주최한 제 1회 워싱턴주 선교대회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시애틀 형제교회(담임 권 준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선교대회는 워싱턴주 지역 선교의식 고취와 전도에 활력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됐고, 선교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 각자의 삶의 영역들이 바로 선교의 장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선교대회는 이재환 선교사(컴미션 대표), 정민영 선교사(워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로렌 커닝햄 목사(국제 예수전도단 설립자)가 저녁 집회를 인도하며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은욱 선교사(인도 어린이교육선교회), 박기호 교수(풀러신학교 교수)를 비롯한 7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에서 이뤄진 다양한 사역 방식과 경험을 토대로 유익한 강의를 전달했다.

선교대회는 대화장 이상진 장로의 개회 선언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으며 이재환 선교사의 강연이 이어졌다.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과 고난도 받아 기꺼이 생명까지도 마땅히 바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이진 선택강의에서 이광보 선교사(아르헨티나 과라니 부족선교)는 38개 부족 마을에 교회를 세웠고, 과라니 부족 가운데 두 가정의 부교역자와 세 가정의 전도사와 함께 거주하며 사역하고 있다. 특별히 과라니 부족은 영화 “미션”에 나오는 부족이며, 이광보 선교사는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 주 최북단 이과수 폭포 부근에 70개 마을에 1만 여명이 살고 있는 밀림으로 들어가 20년 동안 사역하고 있다. 그는 현지에 성경신학교를 개설해 현지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승철 선교사(브링엄 인터내셔널 대표)는 필리핀 바세코 빈곤지역에서 구호 사역, 국제 구호, 개발, 교류 등을 소개했다. 그는 “선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소유 삼으신 주님”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영역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다양한 분야와 영역 속

워싱턴주 선교의식 고취와 전도에 활력 불어 넣는 계기 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주의 통치 안에서 이뤄지는 것”

이재환 선교사는 “21C 선교완성은 가능한가?”(로마서 10:18)라는 제목으로 “19세기는 선교의 위대한 세기라고 말할 수 있으며, 20세기는 더 위대한 선교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과연 21세기는 가장 강력한 선교의 시대에 돌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으나, 로마서 10:18절은 선교의 완성을 선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가 선교를 포기한다면 모든 것이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길이 멀지 않을 것”이라며 “그 꿈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오실 것”이라 덧붙였다.

로렌 커닝햄 목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1:1-14)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소명 안에서 삶의 목적과 은사를 발견하고, 필요한 성품을 개발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며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그 사명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의 일을 맡기신다”며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보내신이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사용되고 공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교”라고 말했다.

김현배 목사(독일 베를린 비전교회)는 “유럽종교 개혁과 유럽선교”라는 주제로 500년 전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자세한 배경을 소개했다. 김 목사는 “중세교회는 신학과 교리가 변질되고,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루터와 칼빈, 쾰링글리, 멜란히톤 등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을 세워 부패한 교회를 새롭게 하셨다”며 “그 결과 교회는 부흥하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가정 등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 오늘날 유럽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며, 무슬림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 선교의 핵심과 전략: 어린이 선교”라는 주제로 강의한 이은욱 선교사는 “어린이 세대는 계속해서 미전도 세대이며, 타 문화권에서 가정과 사회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21세기 선교의 핵심전략이 되어야 한다”며 “어린이는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발이고, 헌신자를 얻게 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선교사는 인도에서 어린이 전도 사역과 교육선교, 공홀사역, 어린이 빈민구제사역, 어린이 개발사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풀러 신학교 박기호 교수 “네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주제로 ‘오직 하나님의 소명과 약속 그리고 순종’이란 선교적 삶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강의했다. 그는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주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며 “하나님의 통치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함축되어 있으며, 우리가 선교적으로 하나님의 제자도를 감수

다. 김 목사는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 오늘날 유럽 교회는 그 생명력을 잃어가고, 영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며, 무슬림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범 목사(벨뷰 레본교회 담임)는 “다음세대를 위한 도시 선교”라는 주제로 도시선교를 향한 비전과 사명에 대해 강의했다. 박 목사는 “성경에 도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선교가 일어나는 중심이기도 하다”며 “인류의 문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해왔기에 변화하지 못하는 공동체와 개인은 도시 속에서 끊임없이 도태되어 왔고, 특히 현대 도시 문화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기에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한인 이민 교회의 도시 선교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북 선교사 김요한 목사는 “통일 선교 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한민족 정체성 회복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북한에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철저히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서, 평양으로 복귀하지 않고 한국에 들어와 북한선교를 감당하는 목회자가 됐다”며 “복음 통일과 민족 복음화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회 소식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9: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009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2부예배 오전 9:45(화-토) 오전 6:20(토)
3부예배(세대예배) 오전 11:30 *한라사역 예배 15분 전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종교기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영입하고, 이민2세를 확립하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den 코너)
T. (213)386-2233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함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유초등부 오후 10:30
3부예배 오후 2:00 중고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종교동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여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r.org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김민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영아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213)267-0030 www.churchla.org

1부예배 오전 8:3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화)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담임 채동선 전도사
행정 안기정 목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1818 S. Western Ave., LA, CA 90006
T. (213)465-5522 www.maga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행장 17:2)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han.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화)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번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인근 일대)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후 12:3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행장 17:2)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han.com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차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행장 17:2)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아부, 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차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행장 17:2)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han.com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영아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 이틀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관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9:30 김중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u@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분당) 오전 11:00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에베(캘리포니아) (소액함)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알, 믿음, 마음,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디오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영아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 이틀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를 소, 친 초 정신의 호를, 바른교회관의 호를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차부, 유년부, 유초등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청년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매해 성령을 통해 해방사령과 이웃사랑을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www.churchla.org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 찬양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한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이민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교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용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라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살강회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Awana 오후 8:00(금)
중국어성경공부 오후 7:30(토) 汉语圣经班: 周二晚上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cm.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 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주일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Blend Service) EM 오전 11:15 (교육관)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영침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성경침례 오후 7:45
절연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희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P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침례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 (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벨리레즈 Valley Chapel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 383-5887 Tel. (323) 837-0900

최희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국가의 흥망성쇠 하나님에 좌우 믿음으로 기도해야” 서울성시화운동본부 기도회 개최



성시화운동 제금

서울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최낙중 목사)가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관악구 행운동 해오름교회(담임목사 최진수)에서 서울 성시화를 위한 목회자 기도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수도 서울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에선 문강원 목사의 사회로 백영생 목사가 기도했다. 백 목사는 “교회의 위기 등 모든 문제의 해결은 복음화”라고 기도했다. 이어 서울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최낙중 목사가 누가복음 19장 41-44절을 본문 ‘예수님처럼 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민족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라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죄 때문에 울어야 한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목사는 “예수님을 닮지 못한 것을 울면서 회개해야 한다.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다”며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 하신다. 국가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좌우하신다. 우리가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이복연 목사의 인도로 교회와 가정, 국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고, 김창배 목사의 축도로 마친 후 간담회를 진행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성시화운동은 전교회장이 전 복음을 전사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운동”이라며 “1972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김준근 목사님의 기획 주도로 춘천에서 성시화운동 전도대회를 개최한 후 지금까지 이어왔다. 현재는 한국을 비롯해 미주와 유럽, 일본 등 전세계로 확산이 됐다”고 말했다. 김신의 기자

폐암 발병 김동호 목사 “아프니까... 성경 잘 보여”



김동호 목사

최근 폐암 발병 사실을 공개한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전 대표)가 “아프니까 성경이 잘 보인다”고 고백했다.

김 목사는 2일 “아프니까, 조금 두렵고 떨리니까 성경이 잘 보인다”며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말씀으로 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으로 아주 축축 잘 들어온다”고 털어놓았다.

또 “아프니까, 조금 두렵고 떨리니까 남의 아픔도 내 아픔처럼 느껴진다.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보면 아프다는 소리도 못한다. 두렵다는 말, 떨린다는 말, 감히 못하게 된다. 미안해서”라며 “그리고 마음 실린 진정한 기도가 나온다. 전에도 진정성이었는데 그 진정과 이 진정은 그 깊이와 농도가 다르다”고 했다. 김 목사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시 119:71)’라고 한 것”이라며 “내가 아프니 나보다 아이들이 더 난리다. 여기 알아보고 저기 챙겨주고, 이거 챙겨주고”라며 “전에는 내가 저들의 보호자였는데, 오늘 보니 아이들이 어느새 내 보호자가 되어 있다. 대견하고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아내가 미국 여행 중이다.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본래 7일 귀국이었는데, 아이들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랬는데 아내가 오늘 오후 돌아 온단다”라며 “잔 비행기표 찾아 찾아 간거라 아마 변경 쉽지 않았을텐

데, 어쩌면 포기하고 비싼 비행기표 또 끊어 오는건지도 모르는데... 오늘은 아내가 엄마같이 느껴진다. 좋다”고 덧붙였다. 김동호 목사는 전날인 1일에 ‘감사함으로 그 문(수술실 문)에 들어가야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김 목사는 “처음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스스로 찾은 답은 간단했다. ‘너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어? 너라고 뭐 특별한 건 없잖아, 똑같은 사람인데’”라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생각처럼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그리고 인터넷과 유튜브 등으로 서치(search)를 하면서부터 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아 이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구나’”라고 했다. 그는 “정신력으로, 의지로, 용기로 극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남들도 대개 그렇게 하니까, 나라고 못할 것도 없을 것 같다. 그 면에서는 나도 뭐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아니니까”라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김동호 목사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으로, 전적으로 그 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다”며 “‘주가 주시는 평안’, 그리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했다.



나이지리아 여성(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 오픈도어즈

“나이지리아, 보코하람 기독교인 마을 공격에 25명 사망”

“싸워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2일 미국 오픈도어즈는 나이지리아 북동부에 소재한 기독교 공동체가 보코하람의 공격을 받아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8시경 보코하람 대원들이 나이지리아 북동쪽 아다마와 주 마다갈리 인근의 기독교 마을에 침입해 집집마다 공격을 가해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마을의 보안 요원들과 주민들이 가족들의 장사를 준비하는 동안 보코하람 대원들이 2번째 공격을 가해, 이들은 장례식도 치르지 못한 채 피난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미국 오픈도어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협에 처해 있다. 이같은 살해를 멈추기 위해 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오픈도어즈는 “이번 사건은 보코하람의 지도자로 알려진 아부바카르 셰카우에게 충성을 맹세한 근거지에 있는 보코하

람 세력에 의한 공격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은 인근의 숲속에 은신하며 물자를 훔치거나 보안 요원을 공격하고 마을 주민들을 살해했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에서 지난 2009년부터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내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약 27,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200만 명이 이상이 고향을 잃었다.

마다갈리의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 또 다시 불안정함에 놓이게 된 마다갈리 지역의 교회와 신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향후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 마을을 떠난 이들이 더 안전한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 보안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강해진 기자

“北 정치범수용소에 기독교인 최대 5만 명 추정”

美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 권고



김일성 동상 앞에서 절하는 북한 주민들. ©지저스 아미 2014년 2월호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2018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일 보도했다. 북한은 2001년부터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왔다.

보도에 따르면,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종교나 신앙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 정권은 끔찍한 인권 침해기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인간의 천부적 권리조차 부당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정권은 자체적으로 정립한 통치 이념인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강압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전체주의 사회 통제를 고수하고 있다. 주체사상은 본질적으로 절대자를 섬기는 것으로 오로지 정권의 권력 강화를 위해 존재한다”며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교나 신앙의 표현을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탄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공식적으로 무교 국가이지만 북한 정권이 직접 통제하는 예배당을 비롯한 일부 장소에서만 종교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인터뷰에서 이러한 시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예배당의 신자들 또한 외국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선정된 사람들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력한 통제의 범위를 벗어난 모든 종교 행위는 비밀리에 행해지고 있다. 종교 활동을 하다가 잡히거나 심지어 단순히 개인적인 종교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도 체포돼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체포, 구금, 고문 및 처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정치범수용소에 8~12만 명의 정치범이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5만 명이 기독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이 시설의 수감자들은 비인간적인 수감생활을 감내해야 하며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강제 노역에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보고서는 △종교자유 등 인권 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국제 인권 전문가들의 제한 없는 방북 허용 △공식적인 북한 인권특사 임명 △인권과 종교 자유가 미북 대화에 포함되도록, 북한과의 공식·비공식 대화에 북한인권특사와 국제 종교 자유 대사 포함 △대북 라디오 방송과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정보 유입 확대 등을 권고했다고 VOA는 덧붙였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는 정부 산하의 초당적·독립적 위원회로서, 전 세계의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 실태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강해진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교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양침례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 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8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신인예배 오후 1: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지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호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월일예배 오후 1:30
이름없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롬 10:15)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행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람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민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isvision.org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530-4040 / F.(310)530-8400 / cornerstonetv.com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방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윤 목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O. 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미팅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이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찬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이찬양부 오전 9:30, 11:30
한아미(한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성서해설(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화(화-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백성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3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
대학원예배 오전 11:00

오병의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예배(EO)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 순복음교회

예수 영으로 열매를 실리는 복음공동체. ALL IN JESUS 복음의 모든 것을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11: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 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의 선물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대행회 오후 8:00 중교등부, 대학원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하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에 오전 11:30
금요일에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일에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에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전 1:00 (영어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영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에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상사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전 9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람학훈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예 예배 오전 8: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어,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ol.church

주일에 1부 오전 7:30 수요일에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어)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co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에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끄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에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일에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내가 나를 사랑하는나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6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北 고아원... 3층에서 뛰어내려 도망가는 아이도”



북한 고아들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제16회 북한자유주간 5일째인 2일 오후 2시(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가정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건물에서 북한 고아들에 대한 인권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나온 한 북한 고아원 출신 탈북 여성의 증언과 탈북난민인권연합 김용화 대표의 발언을 아래 요약했다.

북한 고아원 출신 탈북 여성 증언

고난의 행군 때,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지만 배급이 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몸이 쇠약해지고 배급도 중단돼 앓다가 돌아가셨다. 결국 나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다. 당시 사람들은 나무껍질을 벗겨 먹었고 식인을 한다는 흉흉한 소식이 들렸다. 아시아 규모가 누구는 100만 명 또는 300만 명이라고 할 정도로 비극적인 기간이었다.

새로운 고아원은 부부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었지만 170명의 고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고아원을 운영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나라에서는 영웅이라는 호칭을 줬고 굉장히 유명한 고아원이 됐다. 그래서 중국이 나 각 곳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다.

지원이 나오면 국가에서 부대가 따라온다. 그리고 중국에서 온 지원 단체가 돌아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을 실어간다.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부부가 팔아서 이득을 챙기고 아이들에게는 하루 두 끼 먹을 수 있는 식량만을 제공했다.

하루 일과는 새벽 4시에 시작했다. 곧바로 2시간 가량 밭에서 일하게 된다. 6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와 기상구조를 위치하며 마을을 뒀다. 기상구조는 강성대국이였다. 그렇게 마을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북한 사적지 청소를 했다. 그후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한다. 어린이들은 학교로 언니와 오빠들은 일터로 갔다.

학교 일과를 마치면 고아원으로 하교를 한다. 하교 후에는 산에 오른다. 하루에 한 단씩 나무를 해온다. 낮이 없어 손으로 나무를 해야 한다. 동생이 그 때 나이 6살이었고 나는 10살이었다. 남동생이 너무 어리다 보니 내가 항상 동생 뒤통까지 두 단을 했어야 했다. 남동생이 너무 작아서 그 짐을 매고 올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의 뒤통까지 같이 매고 내려왔다.

나무를 못하면 저녁 식사를 못했다. 그렇게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녁에 다 같이 생활총화처럼 하루총화를 한다. 하루에 잘못된 것들, 못한 것들을 말해야 한다. 본인 뿐 아니라 다른 친구의 잘못까지 눈여겨보다가 말해야 했다. 공동생활을 하니 한계가 있어서 친구들과 돌아가면서 “나는 이런 말을 할 테니 너는 저런 말을 해라”는 식으로 짜기도 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훈계를 받는다.

그 다음에는 오락회를 갖는다. 춤추고 노는 시스템인데 그 전에 울었던 사람도 활짝 억지로 웃어야 했다. 오락회가 1시간 끝나면 10시에 점조를 한다. 그 생활이 고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 부부의 아들 3명이 있었다. 아내가 4대 있는 성인들이었다. 그 부부의 아이들은 고아원의 여자 아이를 자기의 노예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지명한다. 그렇게 지명이 되면 오빠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 한다. 말을 안 들으면 170명을 모아두고 때린다. 그러면 다음날 엄마는 그것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다. 나는 엄마가 보호를 해주는 편이었다. 외부에 친척이 있어 말이 새 나갈까 조심했기 때문이다.

아빠의 말을 잘 듣고 참으면 직책을 갖게 된다. 엄마는 친척들이 외부에 있고 해서 이야기가 새나갈까 봐 나를 다른 고아원으로 보냈다. 그곳에 가서 머슴처럼 일했다. 일이 만만치 않았다. 운영하는 남자가 분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었다. 나는 하루 종일 식당 일을 하고 와서도 그 남자의

몸을 다 퍼주고 로션도 발라줘야 했다. 3개월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 늑막염을 앓게 됐다. 탈북을 결심했지만 중국에 오는 것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었다.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곳을 선택을 했다. 중국에서 애를 낳게 됐다. 당시 나이가 21살이었다. 아이를 낳았지만 호적에는 올릴 수 없었다. 그래서 아들이 6개월일 때 또 탈북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애가 있는 탈북자는 왕따를 당했다. 아기가 울면 잡혀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면제를 준비했다. 6개월 아기에게 수면제를 먹여가면서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됐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도 누군가는 제가 살았던 고아원에 있을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없으면 좋겠다. 나는 탈북자이지만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나와 같이 고아생활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나는 북한 인권을 위해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

탈북난민인권연합 김용화 대표 발언

북한에 있는 고아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아원, 각 도에서 운영하는 고아원, 그리고 지방에서 운영하는 지방 고아원이 있다. 안타까운 것은 외국인인 와서 볼 수 있는 고아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 고아원은 저희 북한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잘 돼 있다. 간혹 이 고아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북한이 참 좋은 나라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최근 탈북해 중국에 넘어와 있는 꽃제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방 고아원은 한마디로 노예를 가둬두는 장소다. 오전에는 공부시킨다. 30년 가까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오후에는 밭에 거름을 낸다. 먹는 것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꽃제비 생활을 시작한다. 지방에서 공급받는 것이 열악하다. 거기서 선생들이 때리고, 관리위원들이 또 때리고, 힘 있는 사람이 때려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 4월 그 추운 날씨에도 살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오는 것이다. (마음) 맞는 아이들끼리 뭉치고 마음이 좋은 중국 사람 집에 가 밥을 얻어 먹기도 한다. 그래도 남자들은 생존한다. 여자들은 거기서 그냥 팔리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 노예가 된다. 참 부끄러운 것은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 등 외국에서 북한 꽃제비들, 고아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꽃제비를 싫어한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의 국력을 봤을 때 얼마든지 이들을 살릴 수가 있다.

나는 묻고 싶다. 지금 일본 중군위안부 문제로 70년을 끌고 있다. 지금 중국에는 18세 미만 4만 명이 떠돌이 여자로서 있는데 이들의 인권 이야기 또한 70년 후에 또 떠들어야 하는가. 사람의 인생은 나이를 돌릴 수가 없다.

애들은 살려라. 그 악마의 소굴에서 나온 애들, 제일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에서부터 거부당하니까 갈 곳이 없는 형편이다. 가족이 소중한 것은 북한 사람들도 똑같다. 대한민국은 동물보호법이 있다. 개도 보호를 받는 나라다. 그런데 탈북자, 일명 미성년자가 보호를 못 받는 나라이다. 지금 한국이 힘이 못 되고 있으니 세계가 일어나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 자유북한운동도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다. 아프리카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인육을 먹었다는 나라는 못 들어봤다. 약한 지도자 밑에 사는 북한 고아들, 탈북 고아들. 힘을 합쳐 그들에게 희망을 주라. 한 교회가 한 사람 살리기 운동. 그것이 김정은에게는 총알보다 무섭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

김대원 기자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물티슈
 주일학교
 교회일지
 마그네틱 메모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 찬양 사역자 구함
 ■ 기타 연주 하시는 분
 ■ 드럼 연주 하시는 분
 ■ 바이올린 연주 하시는 분
 ■ 기타 악기 연주 하실 수 있는 분

문의 : (213)408-5819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문의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매달 2커플에게 드리는 야외촬영(2시간) Free

계약에 관계없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께
 무료로 촬영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정사진, 가족사진

Scott Kim Studio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scottkimstudio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킷 김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기독교일보 “6월 롬폭 꽃 축제 스페셜” 추억여행
 “롬폭 꽃 축제”와 “솔뱅크” & 카추마 호수

지명	시간	2019년 6월 29일 토요일 일정표	비고
기독교일보	07:00	- 3020 Wilshire Blvd #160, 기독교일보 집결 및 출발	대형 고급 버스
롬폭	10:00	- 롬폭 도착 및 [롬폭 꽃 축제] 참관	
뷔페	12:00	- 차이나 킹 슈퍼 뷔페 도착 및 중식	중식: 차이나 킹 슈퍼 뷔페
역사 탐방	13:30	- 라뿌리시마 미션 주립역사 공원 [역사탐방] - 주어진 미션 수행 [사진 촬영]	
솔뱅크	15:30	- 솔뱅크 도착 [관광] 후 L.A.로 출발	
카추마 호수	16:30	- 카추마 호수 경유 및 휴식	
기독교일보	18:30	- 기독교일보 도착 및 해산 / 안녕히 가십시오	

CHINA KING SUPER BUFFET

팁(\$10)별도
\$99
 입장료 포함

솔뱅크
 카추마 호수

포함 사항 - 대형 버스, 중식(The Buffet), 주립역사 공원 입장료,
 불 포함 사항 - 모든 팁(버스 기사, 관광 가이드 등), 여행보험



北 군대 인권 증언 “가혹행위 외 여군 성접대에 도둑질 지시까지”

[2019 북한자유주간] 토론회 진행

제16회 북한자유주간 6일째인 3일, 미 하원의원 회관인 레이번 빌딩에서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램프스 인권위원회 주관으로 '북한 군대 내 인권 유린'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북한 군인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을 요약했다.

북한 호위총국 간호장교 탈북자 최유진 씨
학교를 졸업하고 간호 전문대에서 간호 교육을 받았다. 교육받는 이 대부분은 뺨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뺨이 없는 나는 많이 힘들었다. 그들과 견줄 수 있는 건 실력 뿐이었고 기를 쓰고 공부해 높은 점수로 졸업했다. 입대 당시 연애를 하지 말 것을 강요 받았고 처녀성 검사도 이뤄졌다. 이후 특수과로 가게 되었는데 비밀보장에 대한 철저히 교육 받고 서약서를 작성했다.

어느 날 이곳에 친구가 입원했다. 친구는 매일을 울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김정은을 기다리기 위해 매일을 청소하고 간부들이 올 때마다 성접대를 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자꾸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해 집에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친구의 부모님이 와서 원장에게 뇌물을 줬고 1년 후 의가사 제대를 하는 것을 보았다.

이 친구를 보며 불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더 한 사건을 보게 됐다. 추운 겨울, 바지가 피범벅이 되어 실려온 여군이 있었다. 살펴보니 4개월 된 아이를 유산 한 것이었다. 출혈이 심해 수술을 할 수 없었고 지혈제를 2배로 놓았다.

그녀를 데려온 군인들을 나무라던 원장에게 전화가 왔다. 정중하게 전화를 받은 원장은 “그래도 높은 데서 전화가 왔다”고 말했다. 나중에야 사정을 알게 됐다. 북한에서 여군이든 남군이든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그녀는 입당을 하고 싶었지만 뺨도 없고 돈도 없었다. 동기 중 제일 뒤처지는 것 같자 당 관계자에게 성접대를 하다가 임신이 하게 된 것이었다. 임신은 했지만 입당 준비 기간을 놓칠 수 없어 복대로 배를 가리고 훈련을 받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그녀는 “입당도 못하고 이 지경만 됐다”며 내 손을 잡고 울었고 끝내 떠나갔다.

불안감을 느낀 나는 매해 바치는 충성 선물로 꼴을 준비하겠다는 핑계를 대고 집으로 왔다. 부모님은 뭐든 팔아 이것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럴만한 형편이 아니었다. 전에는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해 집이 잘 살았다. 하지만 회사가 부도



제16회 북한자유주간 6일째인 3일, 미 하원의원 회관인 레이번 빌딩에서 '북한 군대 내 인권 유린' 토론회가 진행됐다. 오른쪽부터 북한자유연합 대표 수잔 솔티 여사, 간호장교 탈북자 최유진 씨, 소위 출신 탈북자 강리혁 씨, 한 보위사령부 출신 탈북자 조영화 씨

났고 집을 남기면 빚을 갚아주고 새 집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공장 경비실에서 살고 계셨다.

이 광경을 본 난 부대에 가기 싫다고 떼를 썼다. 아버지는 나를 친척집으로 빼돌려 주셨다. 하지만 생활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동반자살

있었다. 이후 교회를 찾아갔고 저를 위해 금식까지 하며 목격자까지 인도해 줬다.

북한군 소위 출신 탈북자 강리혁 씨
신병교육대로 배치 받았을 때 저녁 밥은 뭐가 나올까 기대했다. 식사 시간,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날 한 옥수수 밥을 불려 세

며 주저 앉았다. 부소대장은 얼굴에는 관심도 없었다. 밥이 왜 거기 나타나며 일주일간 2배의 근무를 서라고 했다.

참모장의 아내는 어느 날 소를 훔쳐오라고 했다. 북한에서 소는 금값이다. 때문에 소를 훔치다가 걸리면 총살을 면할 수 없다. 내가 너무 위험해 할 수 없다고 하자 참모장의

삼팔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다. 군인 뿐 아니라 주민들까지 여기에 손을 댄 것을 안 김정은은 모두를 사살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배고픈 군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훔친다. 목숨을 먹을 것과 바꾸는 것이다.

이후 출신성분을 문제로 정치범으로 몰렸고 두 살 된 딸을 두고 탈북했다. 아직까지 딸의 소식을 모르고 이모부는 잡혀가 매 맞아 죽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김정은이 밉다. 그는 사람이 아닌 악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날까지 싸울 것이다.

북한 보위사령부 출신 탈북자 조영화 씨
군에 입대할 당시 김일성, 김정일을 지키는 것이 부모님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군복무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함경북도 배치됐는데 건물도 없는 야산이었다. 김정일이 국경 강화를 지시했고 모자라는 병력은 신입들로 보충이라고 명령한 것이다. 병영 막사를 지으러 매일 같이 나무를 해야 했다.

먹을 것이 부족하니 부대별로 도둑질을 보냈다. 한 번은 도둑질을 하던 군인 한 명이 잡혔고 소대장이 사과하고 데려왔다. 사관들은 그에게 동작이 굼뎠다며 영하 30도 눈발에 세워놨다. 그는 동상으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다 잘라야 했다.

이후 두만강 인근에 배치되었다. 부대는 두만강을 통한 밀수를 했다. 국가기관에서 만든 유명회사들을 통해 불법 밀매를 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일본에서 불법으로 중고차를 들여와 중국에 팔았다. 하지만 제재가 심해지자 마약 밀매가 시작됐다. 비자금 조성을 위해 불법 마약을 밀매하는 것이다.

2010년에는 중앙당 39호실에서 손님이 찾아왔다. 현장에 도착하니 소형트럭 2대에 50kg 상자 50개가 있었다. 이를 넘기고 검은색 트럭 5대를 넘겨 받았다. 매년 이런 일이 두 차례씩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인들도 자체적으로 마약을 만들어 팔았고 그 대가로 발전기, 자전거, 쌀 등을 받았다. 또 밀수하는 국경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기도 했다. 김정은은 제재 속에서도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마약을 만들어 유통하고 군인을 비롯한 청년들을 자신의 노예로 전락시켰다.

이후 나는 조부모가 남한 사람이란 이유로 강제 전역 당했다. 절대 보위장교가 될 수 없었다. 남한 드라마와 영화, 라디오를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고 탈북하게 됐고 지금은 자유북한 방송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김동은 기자

간호장교 출신 최유진 씨 “한국으로 오던 길 사채업자들에게 잡혀... 장기매매 위협 받아”
강리혁 씨 “영양실조에 걸린 군인들... 추수철 옥수수 이삭 줍기로 허기 달래”
조영화 씨 “부대가 유명회사 통해 불법 밀매... 비자금 조성 위해 마약 밀매도”

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먼저 쓰러지는 걸 본 어머니가 이웃들에게 딸을 살려달라고 했다. 병원에서 나는 보름 만에, 어머니는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 눈 떠 보니 그나마 살던 집도 없어진 상황이었다. 그 자리에서 손목을 그었다. 목을 매어 3번 더 자살시도를 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죽을 운명이 아니구나 싶어 탈북을 했다.

혼자서 중국에 와보니 어머니를 두고 온 것이 실수였다. 어머니께 어떻게든 오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죽어도 아빠 곁에, 고향에 묻히고 싶다”고 하셨다.

한국으로 오던 길에 사채업자들에게 잡혔다. 2층에 감금되어 있던 중 전화를 엿들었다.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신장이 얼마이다”라는 것이다. 눈 앞이 캄캄했고 난생 처음으로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닮았다. 그래도 살겠다는 생각으로 2층에서 뛰어내렸고 그 추운 3월 옥수수 더미에서 바지에 불일을 다 보면서까지 버티고 버티 3일을 숨어

순가락 정도 줬다. 그날 밤 배가 너무 고프 잠이 오지 않았다.

신병 교육 후 본부대로 갔지만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영양실조에 걸린 군인들이 많았다. 어느 날 부대 내에 병이 돌았는데 90%가 사망하는 병이었다. 부대에서는 남한에서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쥐를 풀어 퍼뜨린 병이라고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런 쥐는 있지도 않았다. 배고픈 군인들이 오래 된 음식 먹다가 생긴 병이었다. 배고픈 군인들은 추수철 옥수수 이삭 줍기를 했다. 옥수수 한 이삭을 줍고 세 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짓던 그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구타도 끊이지 않았다. 한 번은 두 시간 근무를 마치고 인계를 하기 위해 선임을 꺼웠다. 선임은 자신을 꺼웠다며 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근무를 더 서라고 하며 들어갔다. 이런 일은 여러 곳에서 있었다. 부소대장이 불러 식당 문을 여는 순간 얼굴에 밥과 뜨거운 국 그릇이 날아들었다. 비명을 지르

아내는 내 후임에게 그 일을 시켰다. 소를 훔치면 그를 내 자리에 앉히겠다고 꼬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국 소를 훔쳤다.

지휘관 양성 학교로 갔지만 간부들은 매일 같이 술, 담배 심부름을 시켰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성격이 올라가지 않았다. 졸업 후 배치받은 부대의 현실은 열악했다. 사격 훈련을 나간 곳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군인이 개구리를 먹고 쓰러진 사건이 있었다. 그는 병원에 실려 갔지만 2시간 만에 사망했다. 그 부모들의 하소연을 잇을 수가 없다. 우리는 건강한 아들을 보냈는데 지휘관들은 무엇을 했느냐며, 내 아들을 살려내라는 부모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뿐 아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총에 맞아 죽는 군인들이 허다하다. 개성지역에는 인삼이 있다. 이 인삼은 김정은의 비자금을 위해 사용된다. 이 인삼에 손댄다는 것은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만 살 수 있게 되자 인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19년 봄학기 학생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2019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집과정

◆학사 과정 (B.Th/B.A)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석사 과정 (M.Div/M.A)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교상담학사
- 기독교교육학사

◆박사 과정 (D.Min/Ph.D)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교상담철학박사
- 기독교교육철학박사

수시 입학 가능

등록상담전화
310-678-6836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A, CA 90057 | TEL: 310-678-6836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봄학기 신/편입생 모집

참,(진리의 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가능
- 2)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 수여가능
- 3)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 (학점교환 가능)

수시 입학 가능

입학상담: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 213-272-6031

“고문 중 성경 끝까지 품었던 14살 소녀의 죽음, 간수 변화시켜”

[인터뷰] 정보 유입 사역 펼치고 있는 최정훈 사령관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사령관은 1일 진행된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 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제16회 북한자유주간에 참가한 최정훈 북한인민해방전선 사령관은 북한 자유주간 둘째날 열린 저녁 환영리셉션에서 북한은 성경을 소지한 죄로 고문을 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14세의 소녀가 죽었다는 안타까운 사실과 놀랍게도 고문으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성경을 품었던 이 소녀의 죽음으로 인해 간수가 기독교 신앙에 감동을 받아 성경책을 구하기 위해 중국 접경지대에 나왔던 소식을 전했다. 평소 북중 접경지대를 통해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사역을 펼치던 그였기에 들을 수 있는 사연이었다.

이에 기자는 최정훈 사령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 전파의 역사와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식 변화 및 북한 자유화 방안에 대해 들었다. 그는 확실히 북한 내에서도 삼삼오오 모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고 했으며 지교회 성도는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했다. 외부에서 북한 내부에 성경 자체를 반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가지 기술적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성경을 품고 죽어간 소녀로 인해 한 간수가 변화된 일은 북한 안에 성경의 역사가 일어난 실제 사례라고 설명했다.

최정훈 사령관은 2006년 12월, 압록강을 건너 탈북했다. 북한에서 김일성 정치대학과 공산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로 상하수도 건설직장 초급당비서를 맡았으나, 북한의 경제악화로 식량공급이 안되자 부하직원과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북한에 납북된 최옥일 씨의 탈북을 돕다가 적발돼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됐다. 북한인민해방전선

은 북한주민들에게 대북방송을 보내고 있으며, 접경지대에서 라디오와 USB, SD카드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변화 및 남한주민 생활상, 김정은 정권의 실체 등을 북한 내부로 유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단체 총연합을 통해 탈북민들의 올바른 정착과 관심을 호소하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다.

북한인민해방전선에 대해 소개해 달라

북한인민해방전선은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이 결성한 북한자유화 운동추진 시민단체로, 북한체제 실상을 알리기 위한 선전운동을 하고 있다. 북한군을 잘 알고 있는 군인 출신 탈북자들이 모인 단체라 군부대 강연을 비롯해 북한 군 문제 및 현 상황 등을 알리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 국제 사회의 다양한 정보를 유입하는 일을 하고 있다.

북한 내, 정보 유입은 어떻게 하고 있나?

특히 2014년부터 노트텔이라고 USB나 CD, 중국 TV 채널을 볼 수 있는 장비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 1만대 이상 북한에 들어갔다. 북한에서는 조선중앙방송만 볼 수 있는데, 이 장비는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9볼트 배터리만 있으면 장소의 제약 없이 한국 드라마나 소식을 볼 수 있다. 노트텔의 파급력은 대단한데 2014년 월드컵 당시 북한 내부 중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러시아 경기에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 축구선수 이름을 다 알고 있을 정도다. 이런 변화가 북한 자유화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일

깨우고 북한 정권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공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북한 내 정보 유입의 효과는?

라디오 방송과 대북 전단지 살포 등 지금까지 북한 인권 단체들이 해왔던 북한 내 정보유입을 통해 북한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북한 주민들이 눈과 귀를 열었다는 점이다.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김일성 부자를 신으로 알았던 북한 주민들이었지만 이제는 김정일을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김일성의 가계도를 비롯해 남과 북의 차이, 국제사회의 변화 등 외부 정보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자기가 철저히 속아왔던 것을 깨닫게 됐다. 시장에 앉아서 노골적으로 김정신을 비난하고 북한 내부 문제를 이야기 할 만큼 분위기가 자유로워졌다. 외부에서 많은 정보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북한 공산정권의 붕괴 시점은 언제라고 보는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금 수준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꾸준히 이어지지만 한다면 북한 정권은 올해를 넘기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본다.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도 '쌀로 당을 만들자, 금보다 쌀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내부 사정이 어렵다. 일반 주민들은 지원이 없어도 지금까지 견뎌왔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가한다 해도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위기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간계급은 상황이 다르다. 김정인에게 충성을 해 왔던 보안원

대북방송, 라디오와 USB, SD카드 등 통해 대북 정보 유입 트럼프 행정부 대북정책 지속...北 정권 올해 넘기기 힘들 것 정보 유입 통해 김일성 부자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 알게 돼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

들 같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5월 6월 보릿고개를 가는데 중간 계급까지 배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 유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끊임 없이 요청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제재는 지속되어야 한다.

고 성경책만 몸에 품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 소녀의 집은 함남도에 있었다. 10일 동안 걸어서 가다가 양강도 끝에 있는 보초소에서 안타깝게 체포됐다. 그리고 몸 수색 과정에서 성경책이 나왔다. 아직 어린 소녀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면 살아났을 것이다. 교도관들도 성경책을 직접 찢으면 용서하겠다고 회유했음에도 고문당해 죽을 때까지 성경책을 안고 있었다. 8명의 교도관이 있던 곳인데, 놀라운 것이 그 소녀의 죽음을 목격했던 교도관 중 한 명이 그 소녀의 신앙에 감동을 받아 성경책을 구하려고 중국으로 건너왔다. 북한 주민들도 성경에 대한 교육만 이뤄지지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 지금부터 그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야 한다.

북한 지하교회 상황은 어떤가? 복음전파가 이뤄질 수 있나?

북한은 극도로 폐쇄적인 사회이고 단속이 철저하고 신자로 박갈될 경우 사형까지 집행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거나 확산되는 속도가 늦다. 지하교회 성도는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들은 신앙을 유지하면서 10명에서 15명의 인원이 모여 성경을 읽고 찬송하는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조심스럽지만 복음을 나누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금 북한은 다양한 정보 유입을 통해 주민들 사이에서는 김일성 부자가 신이 아니면 누가 신이냐는 궁금증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은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예를 들어 USB에 찬송가도 넣어서 보내는데 일반 찬송이 아니라, 북한 노래에 찬송가 가사를 넣어 만든 찬송이다. 북한 주민들의 귀에 익은 노래에 복음을 넣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실제 복음 전파의 사례도 있나?

탈북민 단체에서 10년간 북한에다 풍선을 통해서 또 바다를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꾸준히 유입하는 활동을 해왔다. 성경도 함께 들어갔다. 현재 북한 주민들 속에서 지하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 그 수는 정확하게 집계된 것은 없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꼭 하고 싶다. 2012년의 일이다.

일례로 14살짜리 소녀를 통해 교도관이 변화된 일이 있었다. 그 소녀는 돈을 벌려고 중국에 갔다가 중국 북한 접경지대에서 한국 목사님들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 소녀가 말씀을 대해 정말 잘 받아들이니까 그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런데 그 소녀가 한국에 오지 않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왔다. 목사님들이 돈을 모아서 주자 돈을 받지 않

이 밖에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며 들은 이야기들이 있는가?

또 하나 알리고 싶은 것은 북한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들이 북한에서만 걸리고 있는 전염성 병에 걸렸다. 치료 방법이 없어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병이었다. 이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안고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님' 하며 부르며 기도했다고 한다. 그 지역에 4명의 아이들이 걸렸는데 자기 아이 하나만 살아남았다고 했다. 꾸준한 정보 유입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생활총화를 한다는데 복음 전파에 어려움은 없나?

여전히 1주일에 한번 생활총화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바뀌었다. 더 이상 김일성, 김정일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지금 사람들은 생활총화를 우습게 여긴다. 거짓말로 자아비판을 한다. 큰 의미가 없다.

김동욱 기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러 전문점

헤어컬러
\$40 up \$20 up

단, 컬러만 하시면 \$40

매직 스테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Puente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능

가정의달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